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부활절 후 제3주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9(통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청과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넘어 101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던 감동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던 시간들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100년의 시간을 새로운 감사와 순명(順命)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으로 신음하는 이 자연세계의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모든 생명의 탄식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모든 생명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서로가 귀하 여기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인도자

♠ 교 독 문 44. 시편100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성경봉독 몬1:8-20 안홍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성사(聖事)가 된 교회 김재흥 목사

찬 송 다함께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장로 은퇴식 >

축 사 박옥식 전도사
 은퇴장로인사 구성실 장 로
 축 주 운주원 이현순
 선 물 증 정 말 은 이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자신과 세상에 실망하여 어두움을 벗어버리지 못하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새로운 길을 여시고 앞서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한 빛을 주위의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새로운 출발에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찬양제	5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수정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권미숙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박규석 안정숙 진정숙 권미정
	헌금위원	방문성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정성으로

에텐동산 한복판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치 기도하듯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는 나무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상징처럼 여겨져 어느 문화권 속에서도나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우주수(宇宙樹)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그것은 동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입각점입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는 나무 한 그루가 우리 가슴에 심겨져 있다면 삶은 한결 든든해질 겁니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어느 선생님은 만일 나무가 되라 하면 산 위의 낙락장송이 되기보다는 다른 나무들과 어깨를 견고 숲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는 못해도, 서러운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면, 작고 여린 새들의 품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에 가면 반얀나무(*Ficus benghalensis*) 숲을 볼 수 있네요. 뿌리가 약한 반얀나무는 비바람을 견뎌내기 위해 제 가지에서 다시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특이한 습성이 있는데, 땅에 닿는 뿌리는 기둥뿌리(支柱根)가 되어 나뭇가지를 받쳐준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그루 반얀나무는 숲 전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숲은 더 푸르러지고, 그윽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가끔 산에 오르면 세찬 바람에 넘어진 나무를 봅니다. 가로로 누운 나무를 보는 것은 안쓰러운 일입니다. 그간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얼마인데 저렇게 자기를 놓아버렸나 싶기 때문입니다. 가로로 누워 뿌리를 드러난 나무를 봅니다. 원뿌리는 보이지 않고, 곁뿌리만 무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 한 방울을 찾기 위해 어두운 땅을 더듬어 내려가지 않아도 좋았기 때문일까요? 때로는 좋은 환경이 복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흙이 파이고 깎여 뿌리가 밖으로 드러난 나무도 보입니다. 그 뿌리가 곧 나무의 안간힘인 줄 알기에 가슴이 짠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 뿌리

를 짓밟고 무심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흙 한 줌을 덮어주고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궁벽한 시골 마을에 부임하게 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내려놓자마자 그는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에게 인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햇살이 비쳐드는 예배당은 뽕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벌써 오랫동안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예배당 청소를 대충 마치고 뒤꼍으로 나가자 무너진 둔덕 중간쯤에 채 30cm도 되지 않는 작은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흙이 빗물에 깎여내려서인지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고사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목사는 그 나무에게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나무 몇 대를 가져다가 그 소나무 주변에 박아놓고 흙을 채웠습니다. 물을 떠다가 뿌려주면서 그 나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슬아슬한 희망’. 그는 소나무가 자라 그늘을 드리우는 날을 내다보며 날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곁에 그의 가슴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영화감독인 타르코프스키는 『순교일기』라는 책에서 사막교부들이 전해 주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줍니다. 파반다 출신의 파베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승이 한번은 말라죽은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 산 위에 흙을 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코로그에게 이 앙상한 나무에 매일 한 동이씩 물을 주되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주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녁 때 다시 돌아오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나무는 싹이 나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노수도승은 열매를 따 교회의 수도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이리들 와서 순명(順命)의 열매를 맛보도록 하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면 영약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의 열매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일겁니다.

■ 마/음/으/호/워/는/글

백 년의 나이테를 속에 감추고 자라는 나무처럼

- 하나님과 한호흡으로 숨쉬어온 청파교회 100주년에 붙여

그대 안에, 그대 심장보다 더 가까이 있는
성스러운 빛을 항상 신뢰하기를.
그 빛 속으로 거추장스런 옷을 훌훌 벗고 / 알몸으로 나아가기를.
그대 아침마다 해님과 어깨동무하고 길을 나설 때
언제나 행낭이 가볍기를.
행여 길을 건다가 지치거나 / 불면의 괴로움으로 뒤척이는
영혼의 그믐엔 고요히 무릎 꿇기를.
자주 고독 속으로 들어가 / 바위처럼 입을 닫고 하늘에 귀 기울이기를.
무변허공에 동지를 틀고 /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기를.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 천금 같은 이 순간을 놓치지 말기를.
땅에 떨어진 금화를 줍느라
별들의 황홀한 음악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꽃 피고 지는 소리, /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 작은 풀벌레 소리에도
자주 감동하고 / 자비의 옷감으로 짜여진 우주에 늘 감사하기를.
뭘 좀 안다고 우쭐대지 말고 / 모름의 신비와 / 생명의 경이를
연인인 양 뜨겁게 껴안기를.
그대 영혼의 스승의 부름에 순명하고 / 생명의 빵을 걸님들과
나누는 데 인색하지 말기를.
그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한숨결의 생명임을 항상 기억하기를.
한결 같은 젊음을 지니신 창조주를 닮아 / 백년의 나이테를 속에 감추
고 자라는 나무처럼 / 언제나 푸르고 정정하기를. - 고진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곽상준
 최경미 김신옥 김일량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맹은선 박규석
 박경선 박영희 박지인 방민 안종일 정현주 이한림 김명희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정복순 최종원 홍순구 안홍숙 방준 박권동
 황지현 이건식 신영신 양재성 임미심 허신열 강금연 윤효숙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순자 박범희 박미영 박준희 이기분 서정순 왕수명
 이재문 윤성중 김윤정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이소순 이유선 방극숙
 이은자 장재영 김재영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한성건 황의일 류건형 이주은

감사헌금:

이봉옥 김혜영 권봉근 박옥순 최종훈 김금하 임원민 안종일 정현주
 김영한 이희균 심소재 무명8 에베소 속

생일감사헌금: 조윤기

녹색꿈 헌금: 이병철 김현진 장영숙 이건식 신영신 박영희 이영순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장혜숙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박정숙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송의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임영선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봉배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설립 101주년** : 100주년의 감동을 뒤로하고 10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울창한 푸른 언덕이 되길 소망합니다.
2. **은퇴** : 오늘 예배 중에 구성실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간 장로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 **찬양제**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 찬양제로 모입니다. 1시 30분부터 2층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4. **기도의 밤**: 이번 주 수요집회는 5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출판** : 김기석 담임목사의 설교집,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다>가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6. **신앙다지기** : 4기가 5월 9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하여 8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3월 이후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결혼** : 김남홍 씨와 선우영 씨의 결혼식이 이번 주 9일(토)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8. **신앙실천** : 이번 주간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주위의 어린이들을 안아주십시오.

* 점심식사 : 구성실 장로 (은퇴를 감사하며)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다음 주 : 빌립보 속)

* 설거지 봉사 : 김대근 최종미 (다음 주 : 이정현 박권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